

고려의대 ‘좋은의사연구소’ 설립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단순한 임상적 능력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새로운 역량과 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의사연구소’가 설립됐다.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김효명)은 좋은의사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 4월 23일 개소식을 열었다. 좋은의사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이론적 연구로서 의인문학, 교육학(교육철학) 그리고 실천적 연구로서 의학 디자인-미디어와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탐색해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의학이 가진 인문학적 역사와 철학을 연구함으로써 의료종사자 스스로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찰 역량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교육학을 통해 의사가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하

는 학생 신분의 단계에서부터 의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소식에서는 연구소장을 맡은 안덕선 교수(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가 ‘한국의 의사상’이란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해 경희대 이한구 석좌교수의 연구소 개소 축하 인문 강연이 진행됐다.



▲좋은의사연구소 안덕선 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좋은의사는 도덕과 윤리의 인문적 소양과, 의술의 과학적 요소를 두루 갖춰야 할 것”이라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좋은의사를 넘어 행복한 의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경 의무부총장은 “인간이 쌓아올린 지식과 기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좋은

했다.

안덕선 소장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좋은의사가 지녀야 할 역량과 덕목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좋은의사연구소는 이론적 연구로서 의인문학, 교육학 그리고 실천적 연구로서 의학디자인-미디어와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탐색해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 및 덕목 구체적 제시

의사에 대한 적시성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효명 의과대학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역사적으로도 의료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는 인재를 양성하고 인술을 펼쳐왔다”며 “좋은의사연구소와 더불어 좋은학생선발TFT를 통해 인성이 갖춰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좋은의사를 배출하는 좋은의사양성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이번에 개소한 좋은의사연구소는 의과대학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철학을 연구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수와 전공의에게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기술을 교육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좋은의사연구소 개소식 전경.